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멕시코전이 열리기 하루 전날인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훈련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멕시코 꼭 잡자”... 다시 뛰는 한국야구

### 오늘 저녁 7시 도쿄돔... 올림픽 진출·2연패 분수령 김경문 감독 “선발 라인업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대만전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 동안 공식 팀 훈련을 했다. 슈퍼라운드 합산 성적 2승 1패로 3위를 달리는 한국은 15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과 대회 2연패 도전을 중대 분수령이 될 멕시코와 일전을 치른다. 멕시코는 3승 1패를 거둬 일본과 공동 선두에 올랐다. 멕시코 역시 미국을 따돌리고 아메리카대륙 1위로 도쿄올림픽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려

며 한국을 눌러야 한다. 김 감독은 “멕시코에는 강한 타자도 눈에 띄고, 불펜 투수 중에서도 강한 투수가 보인다”며 “그러나 대비를 잘해 꼭 멕시코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타순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신중하게 라인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12일 대만에 충격적인 0-7 완패를 당한 뒤 각각 야수조, 투수조로 나뉘어 탐험한 버스에 차례로 올라 선수들을 격려했다. 중남미 타자들을 겨냥한 한국산

핵심수심 박종훈이 멕시코전 선발로 등판하며 우완 에이스 이영하가 박종훈의 뒤에 대기해 멕시코 타선을 봉쇄할 참이다. 대표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감독은 “열심히 했다. 이틀간 꼭 쉬고 다시 시작하자”라며 “타자들은 조금 더 힘을 내자. 그리고 멕시코를 꼭 잡자”고 선수들의 기를 북돋웠다. 김현수, 김재환, 박세혁 등 선수들은 13일 도쿄돔에서 일본과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하고 멕시코 전력 분석에도 열을 올렸다. 15일 먼저 열리는 경기에서 미국이 대만을 꺾고, 한국이 멕시코를 제압하면 한국은 사실상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 한국은 멕시코를 꺾으면 3승 1패를

울리고, 멕시코는 3승 2패로 슈퍼라운드를 마친다. 한국이 16일 일본에 패하더라도 멕시코의 3승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멕시코를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대만보다 높은 순위로 대회를 마감할 수 있다. 한국은 대만, 호주보다 높은 순위로 대회를 마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위로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을 얻는다. 현재 1승 3패를 올린 미국은 4위를 차지해 멕시코와 동메달 결정전에서 대결을 희망한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최종 순위에서 멕시코보다 앞서 아메리카대륙 1위 팀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다. 그러려면 대만을 무조건 제압하고 한국이 멕시코를 꺾어주길 바라야 한다. 연합뉴스

## 부평국 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사의 표명

### 내년 도 체육회장 선거 후보 본격화할 듯... 확답은 피해

부평국(사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15일자로 부회장직을 사임할 뜻을 밝혔다. 내년 1월에 예정된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조만간 선거 후보를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14일 제주도체육회관 기자회견에서 “평생 체육인으로서 뜻한 바가 있어 임기 중이지만 상임부회장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 상임부회장은 “농구 경기인으로 체육에 몸담아 농구협회와 철인3종협회 회장, 체육회 임원 등 제주 체육인으로 활동한 기간이 30여년이 넘었다”며 “체육회 이사와 부회장, 상임부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나름 제주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통합 전까지 도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아 도

민 참여와 건강 증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금 체육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스포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면서 보다 밝은 제주체육의 미래를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 상임부회장은 체육회장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사임 이후에 주위 체육인들에게 의견을 묻고 답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에 선출될 체육회장은) 도체육회가 처한 예산 감소 문제와 가맹경기단체의 어려움 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마음의 결심이 서면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류현진 사이영상 수상 실패... 득표에 만족

### 아시아 선수 최초 1위표 획득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사진)이 한 시즌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수상에 실패했다. 그러나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최초로 1위 표를 받아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가 발표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발표에서 1위 표 1장, 2위 표 10장, 3위 표 8장, 4위 표 7장, 5위 표 3장(88점)으로 단독 2위에 올랐다.

사이영상은 1위 표 29장, 2위 표 1장으로 207점을 얻은 제이컵 디그롭(뉴욕 메츠)이 받았다.

디그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았지만, 류현진이 1위 표 한 장을 가져가면서 만장일치 수상에 실패했다.

류현진에게 1위 표를 던진 기자는 캘리포니아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마크 워커 기자다.

류현진은 올 시즌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29경기에 선발 등판해 182%이닝을 소화하면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 탈삼진 163개, 피안타율 0.234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 승수에선 리그 6위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팀 에이스로서 다저스의 7년 연속 리그 서부지구 우승에 앞장섰다. 또한 팀의 개막전 선발 투수로 나섰다. 생애 처음으로 빅리그 올스타에 선정돼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의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디그롭에게 탈삼진과 투구이닝, 피안타율에서 밀려 수상의 영광을 누리진 못했다. 그동안 우수한 아시아 투수들이 사이영상에 도전했지만, 1위 표를 받지 못했다. 한국 선수 중 사이영상 투표에서 득표한 건 류현진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 여자농구 중국 잡고 1점 차 재역전승

### 도쿄올림픽 예선 81-80 승 5년 만에 ‘만리장성’ 넘어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만리장성’ 중국에 짜릿한 1점 차 재역전승을 거뒀다. 이문규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는 1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프리 퀘리파이닝 토너먼트 중국과 첫 경기에서 81-80으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2020년 2월에 열리는 최종 예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중국, 뉴질랜드, 필리핀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상위 두 팀이 최종 예선 출전권을 얻는다. 한국 여자농구가 중국을 물리친 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결승전 70-64 승리 이후 5년여 만이다. 전반을 48-41로 앞선 우리나라는 3쿼터에도 3점을 더 벌이며 10점 차 리드를 안고 4쿼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4쿼터 시작 후 1분 10초 만에 연달아 7실점, 순식간에 접전을 허용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팽팽한 승부를 이어갔지만 경기 종료 2분 50초를 남기고 중국 양리웨이에게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을 내줘 77-77 동점이 됐다.

한국은 종료 1분 54초를 남기고 김단비(신한은행)가 자유투 2개를 얻었으나 하나도 넣지 못했고 종료 1분 전 리밍에게 3점포를 얻어맞고 77-80 역전 당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김정은(우리은행)이 과감한 골밑 돌파에 성공해 1점 차를 만든 뒤 김한별(삼성생명)의 스틸을 박혜진(우리은행)이 다시 한번 골밑 돌파로 연결해 기어이 승부를 뒤집었다. 한국의 대들보인 박지수(KB)가 23점, 8리바운드를 기록했고 김정은은 21점, 4어시스트로 활약했다. 한국은 15일 하루를 쉬고 16일 필리핀(50위)과 2차전을 치른다. 17일에는 뉴질랜드(35위)와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예약폭발  
마감임박!

꽃보다 청춘! 제주직항 3박 5일

## 라오스 비엔티안/빙비엔

12/11(수) 단하루

- ★전신맛사지 2시간
- ★버라이어티 탐방동굴
- ★카약 래프팅 ★블루라운

관광패키지 999,000원~  
골프 54홀 1,290,000원~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 제주직항 마카오 전세기

나만의 취향별로 마카오를 즐기세요

-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 (월, 수 출발)
-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 (금, 일 출발)
- 3. 마카오/단하산 5일 950,000원 (금, 일 출발)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 3박 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제주직항 선착순 12/28(토) 2/19(수) 899,000원

- ★특식 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 ★전신마사지 1시간 (팁별도), 베트남 전통노자 증정, 스트리카 포함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